

'집단 괴롭힘' 허술한 학폭 실태조사

광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동창들로부터 1년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창생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강제 추행·공동폭행·공갈·상해 등)로 고교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 이날 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실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31명(0.7%)으로 전년도 1175명(0.8%)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고 최근 발표

피해 응답률 감소에도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 1년간 추행·공동폭행·공갈 드러나지 않아

표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 822명(1.5%), 중학교 190명(0.4%), 고등학교 118명(0.2%), 기타 1명(0.1%)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고교생이 1년에 걸쳐 동창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 응답률이 매년 감

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낮추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이뤄지고 있어 대면 조사와 달리 학생들이 형식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기보다 표본조사나 면접조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해당 학교 학생부장과 교감을 본청으로 불러 1년 동안 이뤄진 학교폭력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며 "학교폭력을 물었다면 왜 물었는지 시스템상 문제도 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에게 집단 괴롭힘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조인호 기자

고흥 해상서 어선-레저보트 충돌...5명 부상

고흥군 거금대교 해상에서 20일 어선과 레저 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레저 보트가 전복되고 보트에 타고 있던 5명이 골절과 찰과상을 입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오전 8시 21분께 고흥군 거금대교 밑 해상에서 짙은 바다 안개로 인해 어선 H 호(4.48t·승선원 3명)와 레저 보트 R 호(0.9t·승선원 5명)가 충돌해 R 호가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레저활동자 5명이 바다로 떨어져 여성 1명과 남성 1명은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나머지 3명은 가벼운 찰과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바다에 추락한 레저활동자 5명은 H 호 선장 장 모(50) 씨에게 구조됐으며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 위험한 순간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동한 여수해경 연안 구조정은 부상자 5명을 H 호로부터 옮겨 태워 녹동신함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 3대에 인계했다.

해경은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금대교 밑 해상을 항해하던 H 호가 낚시를 준비 중이던 R 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복된 보트는 어선이 녹동신항까지 예인한 뒤 물 위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해경은 양측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목포女 승객 강간살인' 택시기사 무기징역 선고

여객 승객이 잡든 사이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0일 성폭행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사실상 남치해 유사강간하고 살해했다"면서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후 피해자의 유류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인 강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20분부터 5시20분 사이 목포 대양산단 공터에서 택시에서 잡든 승객 A(26·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도주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땀으로 젖어버린 셔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강남구 한 인도에서 현장근로자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폭행 의혹 진상규명해야"

광주 시민사회·장애인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장애인단체가 시립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시립제요양병원 대표이사 겸 원장이 입원 중인 경증 치매 노인(87세)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 측은' 폭행으로 인한 부상 정도가 심각했지만 조치없이 방치했다. 가족들이 확인하기 전까지 어

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학대 예방 교육 의무나 지자체의 행정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관련 의료법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의혹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시립병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윤러 "광주시는 지역 요양병원 50여곳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적 책임이 막중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북지공감 플러스,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시사회복지사협의회, 광주복지리더스포럼,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인권회의, 참여자치21,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참여했다.

최혜규 기자

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30대 딸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손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인근 최모(56)씨의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순금 10돈(시가 250만원) 가량의 팔찌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손씨는 생필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금팔찌를 건넌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달아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인근 원룸 1층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옷을 훔쳐 같이임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택시를 타고 달아난 손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여객선서 추락 40대, 바다 떠돌다 구조

배낭에 의지해 긴 시간 제주 앞바다를 떠다닌 40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8분께 제주시 추자도 동남쪽 16km 해상에서 배낭에 몸을 의지해 떠있는 A(47)씨를 구조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40분부터 승객 1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포 제주간 여객선 B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인근 해역을 수색 중 오전 7시 38분께 A씨를 발견했다.

발견당시 A씨는 자신의 배낭을 안고 있었으며, 숨은 쉬고 있었다. 다만 3시간 가까이 차가운 물에 떠있어 체력이 모두 소진된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와 승용차 충돌 16명 부상

20일 오전 8시 52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항리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A(56)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3명, 승용차 운전자 B(36·여) 등 모두 16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이들을 인근 병원 3곳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B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질문이 많은 교실 행복한 학교

빛고을 독서마라톤 제12회

독서마라톤

2017. 4. 7 (금) - 11. 7 (화)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